

참고

2023년 궁능유적본부 우수사례 선정 최종결과

순위	제출부서 (득표율)	주요내용
1위 (최우수상)	복원정비과 (37.5%)	〈 옛 모습 찾은 광화문, 국민 품으로 돌려주다 〉 ○ 관람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의릉 역사문화관 신규 조성 및 김포장릉 역사문화관 개편 － 각 왕릉의 고유 스토리를 발굴, 캐릭터와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로 개발 ○ 경복궁 건청궁, 계조당 전각 내부 전시 개방으로 특별한 관람 경험 제공 － (궁 안의 궁, 건청궁 특별개방 전시) 왕과 왕비의 업무 및 생활공간을 다양한 재현집기를 활용해 구현하고, 관람객에게 전각 내부 개방 － (왕세자의 공간, 경복궁 계조당 전시) 왕세자 집무공간인 계조당 복원을 기념하고 조선의 왕세자 테마 전시 개최, 연계 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 운영
2위 (우수상)	궁능서비스기획과 (30.8%)	〈 설명 위주에서 체험과 섬이 함께하는 현장 박물관으로 〉 ○ 광화문 복원 완료 및 ‘광화문 완성 기념행사’ 등 성공적 추진 － (월대) 역사·문화·예술 등 가치 회복코자 유관기관 협의 등 노력 지속하여 광화문 월대 복원 완료 － (현판) '10년 재제작 계획 발표 후, 치밀한 고증검증 거쳐 복원 완료 － (행사) 광화문 복원가치 확산코자, 기관 단위 TFT 구성·운영하고, 예산 마련·계획 수립 등 적극 노력 및 다각적 언론 대응·홍보 추진
3위 (장려상)	덕수궁관리소 (17.3%)	〈 100년의 기억, 100년의 꿈, ‘돈덕전 개관’ 〉 ○ 1902~1903년 고종 즉위 40년 기념행사를 위해 건립,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다가 재건된 덕수궁 돈덕전 개관을 통하여, 대한제국의 근대국가로서의 면모와 주권 수호 의지 등을 널리 알리고자 함 － 대한제국의 자주적 외교 공간으로 활용된 돈덕전의 위상 제고
4위 (장려상)	세종대왕유적관리소 (14.4%)	〈 소외계층과 함께 있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〉 ○ 문화유산 소외계층과 함께 세종대왕릉 위토답*을 활용한 손모내기 및 추수 체험행사 등을 통해 세계유산인 세종대왕릉의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, * 위토답(位土答): 제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 － 생산한 쌀 ‘세종미’를 문화유산 소외계층과 함께 나눔으로써 세종대왕 애민정신 계승과 문화향유 증진

* 국민심사는 총 1,015명 참여